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강의 15, 예레미야 11-20, 고백, 2부, 하나님의 파토스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예레미야서를 가르치는 Dr. Gary Yates입니다. 15과, 예레미야의 고백, 2부, 하나님의 비애입니다.

지금 우리 세션은 예레미야서 11장부터 20장까지의 예레미야의 고백을 두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에서 하고 싶은 것은 지난 수업에서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표현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번 수업에서 보고 싶은 것은 이 고백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파기된 언약에 대하여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들이 겪고 있는 일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에 대한 진술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진 상황의 맥락에서 이러한 고백이나 애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1장부터 20장의 배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은 예레미야 11장의 설교로 시작됩니다. 거기서 주님은 기본적으로 유다에게 언약의 불성실을 책망하시고 그분이 그 과정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11장 10절의 특별한 설교에서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어겼느니라. 비난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유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심판의 선포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그들이 피할 수 없게 하리라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때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분향한 신들에게 부르짖을 것이나 그 환난 때에 그들이 능히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예루살렘 거리의 수만큼 되었으니 나는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내가 이미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당신의 기도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중보기도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선지자의 주된 임무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지 못하였거든 여호와께서 11장 14절에서 파기된 언약과 언약의 저주에 대하여 설교하신 후에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내가 그들이 환난 중에 나에게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들을 위한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도움을 원하고, 누군가 자신을 구해 주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신뢰하고 제단을 쌓아온 신들에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여, 당신의 기도와 중보는 그들을 언약의 저주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멸망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여기서 세 번이나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1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도는 깨어진 언약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과 유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예언적 중보기도 자체에는 뭔가 깨진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특히 배도나 죄의 시대에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주요한 역할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선지자. 우리는 모세의 예로 돌아갑니다.

금송아지 숭배 이후 정탐꾼들의 대답을 들은 후에 먼저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에게 와서 그가 맺은 언약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집트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구원하신 백성을 주께서 멸하셨다 함을 그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나이까?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던 때에 백성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것은 그분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생애 말기에 그는 그들을 언약을 지켜야 할 책임으로 되돌리도록 부르면서 선지자로서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백성들이 왕을 구하면서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백성에 대한 공개 사역이 끝날 무렵에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모임을 위해 함께 모였으며, 주님께서서는 일반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추수 기간 동안 천둥번개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쾌하게 여기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우렛소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천둥과 비를 내리셨습니다.

19절에서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이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 자신에게 왕을 구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시면 그들은 잠재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20절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까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십시오.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떠나지 말찌니 그것들은 공허함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더욱이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어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상황에서, 왕을 구하여 죄를 지은 백성들을 살려준 것은 사무엘의 중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선지자로 봉사하는 사역의 마지막 날에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어 죄를 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보라, 네 예언적 역할을 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중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세와 사무엘에게서 보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문구를 보면서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단지 모세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실 방향을 효과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은유인가?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분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기분 좋게 버거킹 대신 맥도날드로 가겠습니다.

열린신론이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구약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성의 실제 측면 중 하나는 그분이 선지자들의 기도에 열려 계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행동 방향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기도할 것인지, 백성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것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진정한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에 영원하고 시간 밖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시간 속에 오셔서 사람들과 교류하시고,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거의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역사와 실제 주고받는 관계에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때때로 하나님의 행동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무엘상 15장이나 민수기 23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다고 말하는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경우도 있고,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언약의 약속을 하신 경우도 있고, 변할 수 없는 심판을 선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거부하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주님께서 때때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을 알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변경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후에는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상황이나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방향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적 중보기도는 종종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을 돌리게 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에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예언적 중보의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는 메뚜기 떼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기억하십시오. 이 메뚜기 떼는 이스라엘 땅을 거의 완전히 먹어치우고 파괴합니다.

아모스는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아, 주 하나님, 이스라엘은 너무 작습니다. 그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동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모세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모스는 불이 땅을 휩쓰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아모스, 같은 기도, 같은 탄원을 하나님께, 주여, 아 주 하나님, 이스라엘은 너무 작습니다. 그들은 이런 판결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불은 땅을 휩쓸고 태워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고 기도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중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변경 가능한 심판의 법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1-25장의 시작 부분에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것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17장과 11-20장에서는 세 번의 호출만 반환됩니다. 그런 다음 21-25에는 해당 통화가 기본적으로 사라집니다. 회개할 기회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사실에 다시 반영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제가 기꺼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과거의 역사, 즉 모세와 사무엘의 중보를 살펴보면 그들은 백성을 구원한 선지자적 중보자의 주요한 예입니다.

주님은 15장 1절과 2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방금 말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구절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을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을 내 목전에서 내보내어 보내라 그들이 너희에게 묻거든 우리가 어디로 갈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전염병에 염병에, 칼에 칼에 대하여 기근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로 잡혀갈 자는 포로로 잡혀가느니라.

보라, 만일 모세와 사무엘이 현장에 나타나서 그들이 간구한다 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고 예레미야는 일종의 부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고,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은사를 받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레미야가 모세와 사무엘만큼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이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닫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중보의 시간,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은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수준, 같은 맥락, 같은 장에서 우리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과 애도는 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들을 도살할 양처럼 도살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언약의 반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주먹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거역하였습니다. 단순히 예레미야를 학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근거하여 그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의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뜻을 풀어 심판을 내리시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주는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을 상대로 기도하는 것임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파기, 예언적 중보기도의 제거가 이 고백들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처럼 이 위대한 기도를 하는 대신에 예레미야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살고 있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앤드루 쉬드는 예레미야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를 상징하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고통과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쉬드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서는 것이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고백과 탄식은 예언적 중보기도가 무너졌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예레미야의 기도, 즉 예레미야의 중보는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살아 있는 모범이 되는 지점까지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토로할 때, 그는 어떤 면에서 그의 모든 약점과

약점을 안고 고군분투하는 인간, 즉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확실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담긴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고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통, 선지자의 고통, 그리고 예레미야가 행한 길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중 일부를 극복해야 할 단지 예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치료를 받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애도에 이르기 전에 시작됩니다.

4장 19절부터 22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의 임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레미야가 정말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자신의 여성적인 면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이거나, 예레미야가 일종의 심리학적 선지자나 선지자의 프로필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선지자의 이 슬픔은 하나님 자신의 고통과 슬픔의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서 주석가들이 지적한 것 중 하나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통과 울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구절에서 그가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때때로 정확히 누가 말하고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인가요? 아니면 선지자인가?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이 세 가지 모두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처음으로 보는 슬픔이나 고뇌의 구절 중 하나는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2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픔과 고뇌를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과 같습니다. 그는 침략군과 일어나고 있는 모든 끔찍한 일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환상에 대한 선지자의 고뇌처럼 보이지만 22절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내 백성에 대해 말할 때 그가 선지자인지 아니면 선지자인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신가요? 해석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엔 둘 다인 것 같아.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둘 다입니다. 9장 1절부터 3절.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자기 백성의 멸망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고통과 비통함을 고백하기 전에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리니 이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곡하였음으로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 닥칠 멸망과 죽음, 파멸에 대한 선지자의 인간적 반응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숙소를 얻어 내 백성을 떠나 떠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지만 오히려 재난 때문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글썄, 그것은 선지자처럼 들린다. 그러나 3절을 보면 “그들의 혀가 활처럼 구부러져 있습니다. 거짓과 진리가 아닌 것이 이 땅에 강성하니 이는 그들이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고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에 닥칠 멸망으로 인해 밤낮으로 울 수 있기를 바랐던 사람이 예레미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3절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선지자의 울음이 하나님의 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음성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이 앞뒤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9장으로 더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이 그의 분노와 슬픔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분노와 슬픔.

아시다시피,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진노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는 분노의 신입니다.

그는 파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역병을 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번개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시고 지켜보실 때 겪는 고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오는 감정을 들어보세요.

먼저 9절에 극도의 분노의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런 나라에 그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적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불성실한 매춘부였습니다. 그들은 수백년, 수백년 동안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들은 남편에게 불충실한 아내와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나라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적으로.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슬픔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선지자입니까?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들판의 풀들을 위하여 애곡하리니 이는 그들이 황무하여 통행하는 사람이 없고 가축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함이라.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폐허를보세요. 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멸망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경험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서 다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폐허더미와 시랑의 굴이 되게 하며 유다 성읍으로 황무하여 거할 곳이 없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는 말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슬픔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후에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로 인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진노가 그 뜻대로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딸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딸, 그의 아내는 이 모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으로서의 유다에 대한 심판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했고, 얼마나 많은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그것이 우리의 문화와 시대에 적합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성에 대한 정당한 표현이라고 비판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대하는 남편이나 신성한 강간범으로. 그러나 나는 이것이 단지 그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배신당한 남편의 아픔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운전면허를 뺏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판사 앞에 가서 운전면허에 수반되는 특권과 책임을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판사는 한 젊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교통사고 영상을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보여준 경찰관에게 세션을 넘겼습니다. 판사는 아이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차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수년간의 법 집행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와 경찰관은 내 아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 생생한 그림을 그렸고, 부모로서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이 그렇게 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신학자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무감각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개념은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과 너무나 분리되어 있고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그들의 반응이나 그들에 대한 반응에 기초하여 고통이나 기쁨을 경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불변성, 불변성, 완전한 타자성을 강조하고 싶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레미야서와는 맞지 않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의 고통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테렌스 프레트하임(Terence Fretheim)은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매우 정확하게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우십니다. 그분은 무감각하게 하늘에 앉아 "나는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나의 주권적인 목적을 성취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이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선택을 하는 것을 보시고,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려는 신학적 이유가 무엇이든, 불가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시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를 오가는 것입니다.

1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집을 버렸고 내 기업을 버렸고 내 주었노니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 백성이 그 원수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 그의 기업, 가장 귀중한 소유물로 묘사하신 것은 이것이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아프게 했는지를 반영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1장 8절과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에브라임을 버리겠느냐?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관계없이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를 내 백성에게 쏟아 붓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멸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님은

내가 내 기업을 버렸고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를 버렸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깊은 고통을 안겨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8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 기업이 숲속의 사자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나에게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녀를 싫어합니다. 좋아, 그럼 그걸 병치해보자. 내 영혼의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녀를 싫어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는 표현을 가끔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거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리하기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들어야 할 구약의 일부입니다. 9절, 내 기업이 나에게 하이에나의 소굴과 같겠느냐? 그녀를 반대하는 맹금류가 사방에 있습니까? 가서 모든 들짐승을 모아다가 잡아 먹어라.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내 몫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나의 즐거운 몫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이르시되 내가 들짐승을 유다로 끌어다가 그 들짐승을 진멸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다음 구절에서 주님은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파괴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그것을 심으시고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을 곳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도자들이며 주님은 그것에 대해 슬퍼하십니다. 11절, 그들이 그곳을 황폐하게 하였으니 내가 슬퍼하리라.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며, 동시에 포도원을 들짐승들에게 주어 먹고 먹게 하신 것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 애도 중에 주님은 사막의 모든 혈벗은 높은 곳에 파괴자들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와 칼이 이곳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느니라. 어떤 육체도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라지를 심고 가시나무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지쳤지만 아무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맹렬한 진노 때문에 자기들의 추수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 구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주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주의 마음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시니이까 아니면 주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사 진노하심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시나이까 대답은 둘 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백을 기도할 때, 그리고 적어도 예레미야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자신이 겪고 있는 일,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슬퍼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어려움을 단지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이 깨어지고 깨어진 언약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4장 17절부터 18절.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깨어진 언약을 다루는 이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과 애도가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즉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라 내 눈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 백성의 처녀 딸이 큰 상처와 심한 타격으로 망가졌음이라.

내가 들에 나가면 칼에 찢린 자들이 있느니라. 내가 성읍에 들어가면 보라 그 병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 땅에서 장사하되 지식이 없느니라 좋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리라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지자의 울음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울기를 원하며 이것이 이 특별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하는 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끔찍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감정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서 예레미야만이 '와, 우리나라가 겪게 될 일을 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예레미야야, 그것이 여호와와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예언의 일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다 하라.

Andrew Sheed가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그는 만약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단지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이었다면, 주님은 하늘에 있는 신성한 권고와는 거리가 먼 곳에서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 도구를 통해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통곡을 보시고 내 머리가 눈물의 샘이 되어 내가 밤낮으로 울게 하셨나이다. 그것은 단지 지나치게 민감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의 멸망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표현하는 고백을 넘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기도 자체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대신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선지자로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신이 교회의 목사이고 어느 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당신의 양 떼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만큼,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에도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14장에서 아주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에만 기도가 깨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도 깨어진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기도로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이러한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야,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재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백성들을 위한 죄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쳐서 증언할지라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소서 우리에게 타락한 일이 많고, 신발을 신은 일과 돌아서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2장과 3장에서 그들에 관해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좋은 고백처럼 들리나요? 응, 꽤 괜찮아 보이는데.

거기에는 올바른 요소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겸손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적절한 척도입니다. 즉, 고백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되 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환난 때의 구원자시로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으며 하룻밤을 묵으려고 따로
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으랴? 어찌하여 당신은 혼란스러운 사람 같으시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주님, 왜 당신의 백성에게서
돌아서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좋은 고백인가요? 전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5절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종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믿음 없는
자여 돌아오라 내가 네 믿음 없음을 고치리라 백성이 이르되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진실로 언덕은 망상이고, 산 속의 향연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도다 그 구절은 그들이 마침내 그들의 우상을 버리게 될 때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과거의 모든 관행을 철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4장에서 이것을 보고 '글쎄, 어쩌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침내 이 곳에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일어날 다른 일들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2장에서 주님께서 법정에서 그들을 기소하셨을 때 했던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바알을 따르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주님, 우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신들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무에게 당신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돌에게 당신이 우리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올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부흥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판결은 기각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방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발을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시리라.

예레미야야,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야, 그것은 단지 말일 뿐이므로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발을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리라.”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구절을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직 그 시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은, 위대한 기도, 위대한 말, 정통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고백적인 기도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회개가 없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선지자는 같은 장에서 또 다른 고백으로 백성을 대신하여 다시 주님께 나아옵니다.

이 구절 바로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처녀 딸이 망하였음이니라.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는 예레미야야말로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유다를 완전히 버렸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시온을 미워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쳐서 고칠 수 없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평화를 찾았으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치유될 때를 기다리지만 보라, 공포가 있을 것이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의 고통이 다소 부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20절,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만큼 죄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알아보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아, 네 영광스러운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맺은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고 어기지 마십시오. 매우 아이러니하죠? 11장에서는 해당 섹션을 소개합니다. 당신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언약의 저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4장, 주님, 우리와 맺은 계약을 어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전례 기도서에서 작동할 수 있지만, 지금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입니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 사람들을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내 목전에서 내보내면 그들이 온역과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언약의 저주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고백, 훌륭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고백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 위에 네 종류의 멸망자를 세우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공중의 새와 삼켜 멸하는 땅의 짐승을 세우리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천하 만국 중에 놀라게 하였느니라 그가 전에 명하였던 판결을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플레이 중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구절에서 이 모든 것의 슬픔에 대해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5장 5절.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당신을 위해 슬퍼할까요? 누가 당신의 안부를 묻기 위해 물러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신은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게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라.

나는 포기하는 데 지쳤습니다. 내가 그 땅의 문에서 키로 그들을 까부렀느니라. 나는 그들을 잃었고, 내 백성을 멸망시켰습니다.

당신은 분노하신 하나님을 보지만, 나는 또한 그 질문의 아이러니도 봅니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아니면 누가 당신을 위해

슬퍼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주님께서 친히 뜻하실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과부를 바다의 모래보다 많이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기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과부를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일곱 살로 태어난 그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기절했습니다.

그 아들이 아직 낮에 내려가매 그 여자가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칼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단지 고군분투하는 선지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가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신학에서 예레미야 11장부터 20장은 매우 강력한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하나님은 놀라운 열정과 감동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 진노와 진노를 경험하시고 느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측면을 무시하거나 피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면서도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선지자의 성품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본성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

이 사람은 예레미야서를 가르치는 Dr. Gary Yates입니다. 15과, 예레미야의 고백, 2부, 하나님의 비애입니다.